

보도설명자료 (‘19. 8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국 기업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1위, 2위를 굳건히
지키고 있음 (JTBC뉴스 8.21일 보도에 설명)

◇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악화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,
우리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, 2위를 굳건히
지키고 있음

◇ 8월 21일 JTBC 뉴스 <반도체 1위 내준 삼성...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
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선두권에서 밀려났음
- ☐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 2위로 밀려났고 세계 3위였던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에 따라 잡혔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악화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,
우리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1위, 2위를 굳건히
지키고 있음
- ☐ 보도 내용은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한 종합 반도체시장 매출액
기준으로, 우리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순위가 ‘18년 상반기 대비
‘19년 상반기에 1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나,

-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60% 이상 하락한 것이
주요 요인으로 우리 업체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아님

* D램(8Gb) 고정가격추이 (DramExchange) : \$8.19(‘18.7) → \$2.94(‘19.7, △64.1%)

- ☐ 참고로 D램의 경우, 우리 업계의 분기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
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중이며,

* D램 점유율(DramExchange) : (‘18.4Q) 72.5% → (19.1Q) 72.6% → (19.2Q) 74.4%

- 반도체 시장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, 메모리 가격이
반등한다면 우리 업계의 순위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
- ☐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, 민간투자 적기이행 지원 등을
통해 우리 업계의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가 흔들림 없이 지속
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

※ 문의: 반도체디스플레이 박종원 과장/주미나 사무관 (044-203-4273)